

건양의 발자취와 미래상

이 참 갑
건양대 총장



1. 설립배경 및 연혁

본 교는 평생을 안과 의사로서 인술을 통한 사회봉사에 헌신해 온 영등포 건양병원(구 김안과) 원장인 김희수 박사의 눈 철학에 입각하여 91년 3월에 개교하여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였다.

일찍이 육성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 79년부터 중·고등학교를 운영해 오던 중 논산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4년제 정규 대학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본교의 건학이념은 마음의 눈을 맑고 밝게 하여 진리와 정의의 길을 찾아 바른 길을 걷는 인간,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인간, 국제화 사회에서 민족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유능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데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교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상대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95년에는 의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 일반대학원 및 R.O.T.C 과정의 신설을 인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설립자의 한결같은 굳은 신념과 강인한 의지력, 그리고 전 교직원 및 전교생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본교는 종합대학교로서의 위상과 체제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함과 동시에 단순 지식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문화의식을 선도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까지 담당하는 등 앞으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한 대학으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2. 대학소개 및 현황

본교의 재단은 학교법인 건양학원이며 이사장은 서울 영등포 건양병원의 원장인 김희수 박사이다.

대학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시설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각종 건물의 신축, 유능한 교수진 확보, 최선의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등 최상의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89년 충남대학교 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신설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여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담하고 포근한 캠퍼스 분위기이다. 그러기에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사제 지간의 끈끈한 정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본교 자랑의 하나이기도 하다.

95년 3월 현재 개설된 학과로는 인문학부에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일어일문학과 · 미술학과, 경상학부에 경영학과 · 무역학과 · 정보관리학과 · 경제학과, 이학부에 수학과 · 화학과 · 전자계산학과 · 생활체육학과, 공학부에 기계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식품공학과 · 화학공학과 · 건축공학과 · 정보통신공학과, 의학부에 의학과 · 간호학과, 2부학부에 경영학과 · 행정학과 · 세무학과 · 전자계산학과 등 총 25개 학과에 3,160명의 재적생과 교수 92명, 행정직원 55명 등이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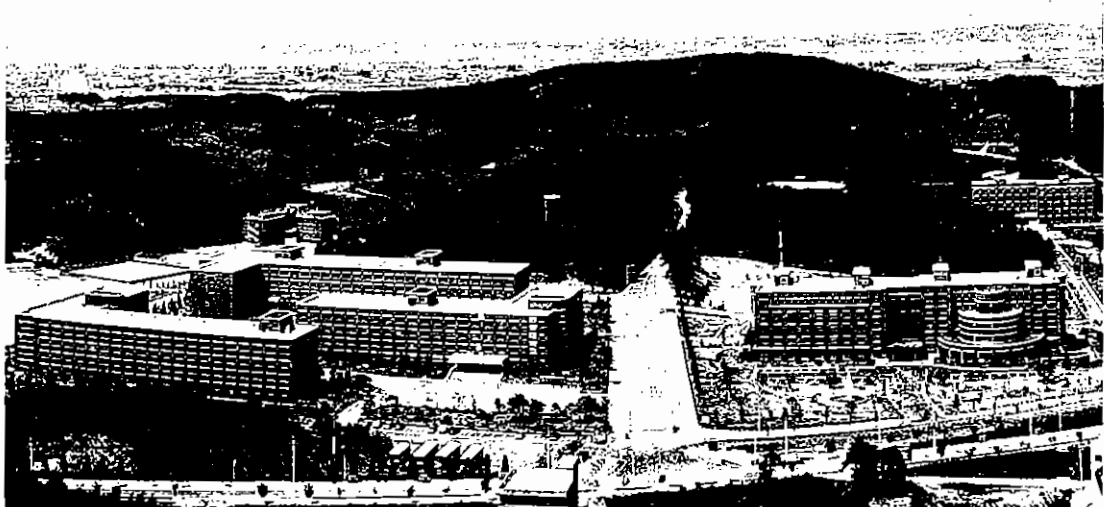
부속기관으로는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등이 있으며 인문과학연구소, 경영 · 경제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식문화연구

소, 지역발전연구소 등 6개의 부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 · 학 · 연 협동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와 완벽한 학생 후생 복지 시설 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율은 60%를 넘고 있으며 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각종 실험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양하고 폭넓은 장학제도 마련으로 전체 학생의 40% 이상에게 장학혜택 부여를 목표로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및 법인 장학금(김희수 이사장 10억 원 조성)이 우수한 학생에게 계속 지급되고 있다. 학생 후생복지 시설로서는 건양회관 내에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한 영상실, 음악감상실, 당구장 등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본교 기숙사는 반야산의 수려한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쾌적한 환경 속에 위치하여 전체 신입생 70% 이상의 수용능력과 사감 교수가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문제 전반에 걸쳐 상담 및 지도함으로써 사생들은 가정과 같은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외에 의과대학의 신설로 논산군을 포함한 인근지역 주민에게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벗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영등포 건양병원도 대학부속병원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제1, 제2의 부속병원을 지역 내에 신축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대학원 석사 과정의 신설로 연구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전 학과에 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마음의 눈을 맑고 밝게 하여 진리와 정의의 정도를 걷는 인재 양성'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건양대는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교육목표 및 학사운영

오늘날 우리의 대학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학의 정체성과 부실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대학 개방화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는 겸허한 자세로 변화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그 시대와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 그리하여 사회와 국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연구여건을 조성해 주어 대학 나름의 특성을 지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사운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교육의 강화이다. 보다 효율적인 영어회화 교육을 위하여 각 반을 20명 이하의 소수인원으로 편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4학기 동안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전 학과의 컴퓨터 교육이다. 21세기의 우리 사회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첨단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컴퓨터 실습실을 확보하고 컴퓨터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교생이 컴퓨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양교육의 심화이다. 정규 강의 이외에 다채로운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나 명망있

는 학자를 초빙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양교육, 학술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비디오 교육자료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교양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참신한 교육과정 운영이다.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하여 대학 본래의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수월성을 지향하고 국가와 지역 사회의 기술과 정책 및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철저한 지도 교수제이다. 학과 학년 별로 지도교수를 분담하여 교수와 학생 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학생의 자기발전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학사운영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과 야망을 가진 젊은이,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젊은이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4. 발전방향

본 대학은 조화와 균형을 갖춘 특징있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기초과

학과 응용과학 분야의 연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산업구조의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학부 5,000명, 대학원 500여 명 규모의 내실있는 대학운영을 목표로 꾸준한 시설 투자로 교육의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교육과 연구의 상호 상승효과 및 중점 학과를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의 특성을 갖추는 작업과 아울러 전 학문 분야의 균형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학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자체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미 설치된 6개의 연구소 외에 연차적으로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과 교수의 구성비를 국제 수준급으로 지향하는 등 최상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교는 타대학에 비하여 역사는 건줄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희망에 찬 도전정신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본래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의 신념 아래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창출해내기 위하여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날로 발전하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대학 자체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사명임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자랑스러운 전망인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